

민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of Acquisition Policy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Focused on Daegu Yakjeon Alley

엄 소 영 (So-Young Um)**, 김 혜 영 (Hye-Young Kim)***
명 현 (Hyun Myung)****, 김 용 (Yo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수집정책개발 |
| 2. 이론적 배경 | 5. 결 론 |
| 3. 약전골목 현황 | |

초 록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로컬리티 기록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하여 골목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으며 약전골목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유형 및 약전골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수집 방안으로는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 사례와 정릉 마을 기록 사례, 오펜센지구 아카이브를 참고하여 단계별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ABSTRACT

With industrialization in urban area communities containing local cultures are becoming hard to be preserv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cquisition policy of record as an way to activate the community by using the locality records containing stro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strict in Daegu Yakjeon alley and extracted the types of records and the components of communities. As an acquisition plan, this study developed step-by-step acquisi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archives of Shiheung Varagi Archives case, the records of Chongneung Village Records case and Stadtteilarchiv Ottensen.

키워드: 로컬리티 기록물, 공동체 아카이브, 수집 방안, 약전골목, 구술기록
Locality Archives, Community Archives, Acquisition Policy, Yakjeon Alley, Oral History

-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djathdud13@jbnu.ac.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khy1005@jbn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mh98@jbn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소장(yk9118@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7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5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79-205,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2.179]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런 짧은 시간 내의 급성장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던 시기에 우선적으로 공공기록물 만이라도 보존하고자 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관리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민간기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법적, 시스템적으로 기준이 잡히지 않아 각 지역마다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운영·관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지방 기록, 민간기록을 비롯한 지역 문화에 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틀 수 없었으며, 특히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는 해체됨에 따라 지역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없이 낮아졌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산업 환경 및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 파괴, 유대감 상실,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손동유, 이경준 2013).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동체 운동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며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더욱더 많은 주목을 끌었다(윤은하 2012).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기록물 수집활동 및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록물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민의 관심과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록물 기증 및 수집 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굳히고 지역의 역사를 보다 온전히 보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정체성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로컬리티 기록물이란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설문원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지닌 로컬리티 기록물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활성화 방안의 제시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기록물을 활용한 방안으로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며, 이러한 아카이브의 구축에 앞서 요구되는 것이 수집정책 및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징과 해당 지역의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집정책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동체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약전골목'이라는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대구 약전골목은 서울 약령시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 시장으로 골목 상

권 대부분이 한의약 관련 점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00년간 이어져 온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지역의 명소이다. 일반적으로 '약령시'는 한의약재가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하고 '약전골목'은 대구 중구 남성로 일대에 위치한 지역적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한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거리가 상업화가 됨에 따라 점포 수가 줄어들어 2010년대 초반에는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입지가 약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유형 기록물 및 구술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약전골목이라는 기억을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약전골목에서 생산된 기록물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한 후,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 다음 집단 별로 역할을 부여하여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상함으로써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한 수집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약전골목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약전골목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형 기록물 및 구술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약전골목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시장으로 조선시대 효종대에서부터 시작한 역사가 깊으나 현재 한의약에

대한 관심 저하, 변화 없는 서비스 제공, 줄어들고 있는 약업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내몰리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록물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아카이브의 구축이 있으며 이러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수집정책과 방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전골목에서 생산 및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정책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방법으로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로컬리티 기록의 정의를 살펴보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이유와 이로 인한 이점을 찾아보았다. 또한 연구 대상인 약전골목의 역사와 현황, 기록물 유형과 범위, 문화재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과 타 지역에 위치한 한방체험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비교하였다. 둘째, 약전골목에서 약업소와 '한방개인박물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방문하여 약전골목에 대한 과거와 현재 인식 변화 및 개인박물관에 대한 기록물 유형과 서비스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열흘에 걸쳐 한 차례 방문 인터뷰와 두 번의 메일 문의로 이루어졌다. 셋째, 수집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민간·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축된 사례를 참고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 계기 및 과정,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사례의 수집 과정을 분석하여 약전골목 기록물 수집 방안

한 목적, 범위, 수집전략, 수집 실행 방안, 수집 평가 및 보완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집과정을 거쳐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가 다시금 단단히 결속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약전골목을 둘러싼 구성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약전골목을 바라봄으로서 기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크게 로컬리티,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기록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권순명과 이승휘(2009), 윤은하(2012), 손동유와 이경준(2013)의 연구가 있으며, 후자에는 조용성(2010), 김화경(2012), 이은진, 이유진과 윤은하(2015)의 연구가 있다.

먼저 로컬리티,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순명과 이승휘(2009)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했던 '세운상가'와 탄광마을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곳곳에 삶은 너무나 많지만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없어, 수많은 지역과 문화들이 역사와 활동에 대한 기억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 아카이빙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삶과 기록들을 관리함으로써 문화적 또는 교육적으로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 스스로가 바라는 지역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 기록 수집절차 설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윤은하(2012)는 아카이브가 역사

적으로 사회 대중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기보다 특정 계층이나 권력의 기록만 보존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과거를 짚으며 기록관리의 가치는 사회 전체를 위해 설명책임성을 가지고 정체성, 사회 정의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간기록물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여 그 기준점을 찾기 어려웠으며, 자유로운 형태로 유통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있어 세대를 거치며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제기되었다. 지역별, 학문 분야별, 민족별, 세대별, 계층별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규정했고, 그 용례와 범주의 방대함으로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현상을 공동의 기록과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 '기억 공동체' 혹은 '기록 공동체'로 불리는 범주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손동유와 이경준(2013)은 근현대시기를 거치면서 성장위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개인주의, 상실감, 소외감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건강한 이력 복원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모델로 도서관을 활용한 모델, 마을 신문을 활용한 모델, 소통·치유형 모델, 예술기록 아카이브 모델, 소수자 아카이브 모델을 제안하여 다양한 모습을 지닌 공동체를 최대한 포괄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용성(2010)은 우리나라 기록물이 절

대적으로 부족했던 근현대시기, 구술사 방법론을 통해 당시 역사의 재구성 및 과거사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구술 아카이브 설립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술 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카이브 차원의 수집 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짚으며 그간 기록학계에서 논의된 수집 이론들을 통해 구술 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 정책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 부분,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부분으로 나누었다. 김화경(2012)은 부산지역의 산복도로를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 활동을 통해 단계별 수집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운영을 위한 설립단계와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아카이브의 역할을 정의한 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맥락분석, 수집범위 설정, 기록화 항목 도출, 수집 방안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연표를 통한 자료수집, 장소정보 수집, 개인 이야기 수집을 위한 전략 수집과 아카이브 개관 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수집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록관리학 전문가가 투입되어 기록관리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첫 마을 아카이브를 건립한 사례로 실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2015)는 중대형 교회에서 기록관을 설립하여 중요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집 정책이 없는 점을 제시하며 영락교회 역사 자료실을 대상으로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먼저 교회의 기능을 분석한 후 교회 조직 특성에 따른 기록물 특징 및

유형을 연대별, 형태별, 기능별로 분류한 후, 사명문을 통해 기록관 설립 및 운영에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록물 분석을 통해 기록물 수집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유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지역별, 사상별, 주제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문화를 보존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약전골목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의거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로컬리티 아카이브 개념 및 범위

‘로컬리티 기록’, ‘공동체(共同體)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빙’ 등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단어들도 그 유형에 따라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로컬리티’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컬이란 단어는 ‘장소의, 장소에 관한, 지방의’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대개 영어권 국가에서도 local은 ‘지방’이란 의미로 쓰이나 현재는 범위가 확대되어 장소와 관련된 공간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

과정들로부터 생겨난 구성물들로 의미가 넓어졌다. 류지석(2009)은 로컬리티를 첫째, 장소/공간성과 연결된 '기층적(基層的) 로컬리티' 둘째, 중앙에 대한 종속적 의미를 지닌 '위계적 로컬리티' 셋째,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 '인식 내지 가치의 로컬리티'로 나누어 로컬리티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였다. 민기석(2012)은 로컬을 어떤 상황 속에 따른 가변적이고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조건들과 관계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역동적인 용어이므로, 국가 안에서의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는 한 지역에 관점으로 그 안에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손동유와 이경준(2013)은 혈연이나 지연 또는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집단으로 '공동사회'라고도 하며, 씨족이나 친족집단과 같은 혈연(血緣) 씨족공동체, 마을이나 이웃집단과 같은 지연(地緣) 촌락공동체, 예배결사나 동지적 결합 또는 친구집단과 같은 정신적 결사 공동체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강대기(2001)는 범위를 더 넓혀 지역성, 도덕·정서적 통일체, 상징적 문화, 언어범주, 사회 또는 경제 체계,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기준과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 결속과 공유가치를 가져오는 심정적·상징적 공동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시작은 1900년대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적 공동체가 파

괴됨에 따라 개인주의, 인간의 고립화, 소통의 부족 등이 문제시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사를 보존·인식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각지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록관리학계에서는 그 이전까지 특정 계층이나 권력, 혹은 공적인 기록만을 보존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선언하며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사회 전체를 위해 설명책임성을 가지고 정체성, 사회 정의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윤은하 2012).

2.2 지역 아카이브 사례

민간·공동체 아카이브는 우선 그 지역민들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구축의 의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기록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나 아키비스트가 없을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수집된 기록물은 대체로 어떻게 보관되며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되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사례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경우와 아키비스트의 협력 여부, 기록물 보관 현황과 서비스 방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2.2.1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

시흥시의 경우 마을 아카이브를 도입하여 도

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례 및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기록 학교를 세우고 평소 마을 기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교육을 이수하였다. 수집 방안은 시흥군지, 시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초 문헌조사 및 토박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관련 사료 수집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등 직접 발로 뛰어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선별, 정리, 취합함으로써 시흥시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흥 바라지'라는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었다. 바라지란 시흥에서 옛 부터 내려오던 방언이다. 방죽, 논, 간척지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닷가에 위치한 간척지이자 갯벌을 보유한 시흥시를 잘 드러내준다. 마을기록학교의 구성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수집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컴퓨터로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가 아닌 그

곳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지역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콘텐츠를 수집하여 전입책자를 편찬하였다. 이는 시흥에 이사 오거나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시흥시의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기록물을 수집하는 등 시흥의 기억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기록물들이 쌓여 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기억창고를 만들었다. 이곳은 단지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기록물을 직접 수집한 주민들이 해설사로 활동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물에 얽힌 이야기와 마을 곳곳의 유래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전시·보관된 기록물은 시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시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흥이라는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전혜선 2016).



〈그림 1〉 시흥시 기억창고¹⁾

1)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http://blog.naver.com/siheungblog/220663036954>)

2.2.2 정릉 마을기록 사례

정릉마을은 2013년 서울시 마을 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기록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정릉마을은 마을 주민과 대학생, 정릉 마을 단체 '우리동네 능말' 회원들을 주축으로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을 꾸려 마을 기록을 조사,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에는 '버스타고 정릉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2년 건축학개론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주인공들이 탄 버스가 정릉마을을 관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버스가 바로 이 시내버스 1번이라 이를 대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여 활용해보자는 것이 첫 걸음이었다. 이에 마을 시내버스 1번에 관한 실제 기록을 파악하여 당시 사용하던 승차권, 동전, 사진들을 수집하였고, 오래 거주하신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옛 버스 종점의 위치를 파악 및 당시 대중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기록물의 가짓수가 얼마 되지 않아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전시회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1970~80년대 직접 운행했던 버스를 대여하여 기록물을 전시하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님을 초청하여 기록물에 따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의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당시 버스 안내원 유니폼을 대여하여 착용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정릉의 기억과 기록' 이야기 전시회를 열어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마을 기

록을 수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양한 주제와 계층의 마을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이야기 발굴 및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질 주민들의 삶의 기억을 기록화 하여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삶 속에 늘 함께 있던 이웃과 공간을 재조명할 수 있으며 정릉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촉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닝 베이커리, 은성슈퍼, 대원서점 등 정릉마을에 있어 상징성 있는 모습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능말 이야기'라는 마을 잡지를 편찬하였다(최연희 2016).

2.2.3 오텔센지구 아카이브(Stadtteilarchiv Ottensen)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오텔센(Ottensen) 지구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넓은 공간을 보수하여 아카이브, 전시실, 회의실 등을 만들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함부르크 역사 사진과 이야기 밑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록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자아 구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었으며, 아카이브는 단순한 자료 수장 기능을 넘어 도시 생활의 정서와 생활사를 투영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역사의식과 생활의식을 표상하는 상징이 되었다. 함부르크 일대에는 이러한 오텔센과 같은 유형의 아카이브가 14개나 존재할 정도로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조경만 외 2003).

이곳은 특히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역사 기억을 비롯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후 이 일대

〈표 1〉 로컬리티 아카이브 사례 비교

구분	시흥시 바라지 아카이브	정릉마을 기록 사례	Stadtteilarchiv Ottensen
아카이브 설립 취지	마을 정체성 확립	마을 아카이브 시범사업	사회운동 일환
활동 인력	시흥시 주민	정릉마을기록사업단	오펜센지구 주민
아카이브 설립 유무	기록창고 설립	없음	공장을 보수하여 사용
기록물 보관 방안	기록창고 저장	사업단 자체 보관	아카이브에 보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유무	없음	없음	-
서비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 책차 편찬 • 해설이 있는 바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잡지 '능말 이야기' 출간 • 웹진 '신나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미술 전시회 • 마을, 교통, 인물 등에 대한 간행물 제작 • 트위터를 활용한 홍보

생존자들의 홀로코스트 경험과 생애담을 기록한 아카이브 운동의 주요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홀로코스트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여성 문제, 계층문제 등 근현대 문화적 이슈들과 사회적 이슈 전반을 다루는 아카이브로 변모하였다(전말숙 2012).

3. 약전골목 현황

3.1 개요

약전골목의 또 다른 이름은 약령시다. 약령시(藥令市)를 이름 그대로 풀이해 보면 국가의 명에 따라 개시(開市)된 한약재를 파는 시장으로,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씩 각각 한 달에 걸쳐 장이 개시되었다. 개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조정에서 쓸 약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관찰사의 명령에 따라 약령시가 열렸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대구 이외에도 원주, 전주, 공주, 진주, 청주, 충주, 대전, 개성, 제천 등에서도 개시하였으나 그다지 번창하지 못하였으며 약령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이 대구 약전골목이다(김신근 1987).

약전골목의 역사는 약 1658년 효종 때 경상감사 객사에서 최초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봄(춘령시), 가을(추령시)에 걸쳐 2회씩 개시되다 1908년 객사로부터 현재 위치인 남성로 일대로 이전하였다. 1914년 일제강점기 시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으로 춘령시가 폐쇄되고 1941년 전시체제로 추령시까지 폐쇄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1978년 부흥운동을 통해 약전골목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다. 대구광역시 소속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가 발족되어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한약재도매시장, 한의약박물관 건립하였으며, 2015년 말, 전통시장에 등록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의 약전골목이 만들어졌다.



〈그림 2〉 약령시 약전골목 안내도

3.2 현황 분석

현재 약전골목은 대구 중구 남성로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약방, 한의원, 약업사, 제당원, 제한소 등 골목 전체가 한방과 관련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었다. 2011년 8월, 인근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3배 이상 올라 6-7곳 가량 약업사들이 약령시를 떠났다. 약령시 내 한방관련 점포 중 약 80%는 임차인으로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전골목 내 건물 2층이나 후미진 골목 등으로 밀려난 약업사도 20여 곳에 이른다. 한약방 또한 백화점 부지로 건물이 헐리거나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 15곳 정도 줄었다(영남일보 2014). 이러한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약전골목 내에서 약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한방개인박물관’을 전시하고 계신 사장님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6년 5월21일부터 5월30일에 걸쳐 한 차례 방문 인터뷰를 하였으며 추가 문의는 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인터뷰는 약전

골목이 가진 콘텐츠의 특징 및 과거와 현재의 인식 변화, 개인박물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현재 개인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전시되고 있는 기록물 유형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90년대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약 사러 오거나, 돈이 없어도 한약 찌는 냄새를 맡기 위해(말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일부러 이쪽 골목을 많이 오가곤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한약방도 많이 생겨서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려는 손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권이 들어서면서 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뀐 점과 더불어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거리의 유동 인구는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백화점을 찾기 위해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들로, 약전골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다(경향신문 2012). 관광뿐만 아니라 약전골목의 주목적인 한약매매도 온라인이나 집 근처 한약방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구시는 약전골목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1987년부터 꾸준히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의약박물관을 설립하였다. 한방문화축제는 매년 5월초에 개최되며 약 5일간 시행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한약방 체험마당’을 통한 전통의상 및 전통 예절 체험, 약첩 싸기 및 약 썰기 체험, 한방 비누 만들기 체험이 있으며, ‘한방힐링센터’를 통해 전문가가 직접 무료로 건강진료를 해 주고, 뷰티 혹은 어린이 비만 등 특화된 상담을 해 주며 뜸 체험을 통한 방문객들의 건강진료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방족욕 및 약 찻잔 빚기, 약초 꽃 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약초 꽃동산 거닐기, 골목 투어를 통해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골목 투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의약박물관 역시 약령시 역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한방족욕 체험, 한방 비누 및 미스트, 립밤 만들기 등을 비롯한 체험 서비스와 서적 및 침류, 약제류 같은 전시 서비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오장육부 퍼즐 맞추기, 내 몸에 맞는 보약 만들기, 체질별 음식 궁합 등의 교육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한의약 콘텐츠의 특

성상 타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한의약을 주제로 한 기관들은 모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 <표 2>는 국내 한의약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약전골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 기관과 차이점이 없을뿐더러 한의약박물관에 전화 문의 결과, 새롭게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한의약박물관이 설립된 이후로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아 현재까지 같은 서비스만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와 같이 한방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는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 전통을 기초로 한 문화 아이콘으로의 질적 변화도 뒤따르지 못해,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을까 싶어 고민한 게 할아버지께서 쓰신 의학 필사본을 전시한 건데... 창고에 있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기록물을 통해 우리 가게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는 홍보도 주고, 이런 병풍이나 찻잔, 약사발에 담긴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박물관이란 이름을

<표 2> 한방체험기관 서비스 현황

기관	서비스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방족욕 체험, 한방차 시음, 한방제품 만들기(비누, 미스트, 립밤), 자가 사상체질 검증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약 제조 및 약첩 싸기, 체질감별 및 건강나이 측정
전주한방문화센터	향첩 만들기, 한방 비누 만들기, 건강코스(체질진단 및 족욕)
제천한방엑스포 공원	사상체질진단, 한방족욕 체험, 약초해설, 한방제품 만들기(한방약초 비누, 향첩, 화장품)
산청한의약박물관	가정한방클리닉(두뇌와 키가 성장하는 쑥쑥 한방법, S라인·V라인을 만드는 날씬 한방법, 100세까지 무병하는 장수 한방법)

걸고 전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전시 하니 가짓수도 적고 그래서 다른 한약방에도 권 해봤는데 알리고자 하지 않아서... 각 집마다 이런저런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싶는데 다들 왜 그렇게 해야 하나고,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이 강해서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보면 산업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더불어 관심의 저하로 인해 한의약 관련 점포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전골목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인 ‘약업소가 즐비한 거리’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조금씩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및 약령시보존위원회 역시 타 기관과 차별성 없는 한정된 서비스로 인해 방문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약전골목을 둘러싼 각 집단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록물 수집 과정을 통해 각 집단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을 중심으로 한 수집 기반을 만들고, 수집된 기록물을 통해 약전골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하고자 한다. 약전골목은 단순히 한의약재를 매매하던 곳에서 나아가 수백 년 간 정기적으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의약 시장이자 골목 곳곳에 위치한 근현대 유적지를 볼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와 더불어 오랫동안 그 지역에 뿌리 내리면서 지역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추억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수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억을 다시 만나봄으로써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3.3 기록물 유형 및 특징

공동체 기록이란 일반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 역사, 문화와 마을 구성원 및 관련 인물, 단체가 속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뜻한다. 즉 기록의 생산을 위해서 별도의 행위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마을과 관련되고 마을 내 일상생활과 행위 및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손동유, 이경준 2013). 그러나 마을 기록과 같이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기록물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민간 기록의 특성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재, 이사 등의 변수로 인해 손실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는 기록물이 잘 보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 특정 문화를 대상으로 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기존의 기록물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술기록을 수집함으로써 기록물 유형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약전골목과 관련한 기록물을 크게 유형(有形)기록물과 구술 기록물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록물의 유형은 한의약박물관, 공공데이터포털의 한방 유물 목록 및 도서 대구 재발전-신택리지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유형기록물은 현재 약전골목 내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기록물 및 현대에 들어 새로이 생산된 기록물로 종이자료, 박물관자료, 시청각 자료와 건축물로 나누었다. 종이 자료로는 한방 박물관 및 약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 고서 등을 포함한 서지류가 있으며,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회의기록을 비롯한 약재 시

〈표 3〉 약전골목 기록물 유형 및 특징

유형		종류	예시	
유형	종이자료	서지류	한의학 전문서, 동의보감(인쇄판), 향약집성방, 만금일통, 보유신편, 단하비결	
		문서류	처방전, 약제시세표	과거와 현재에 발행된 한의학 자료
			회의록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회의기록
		인쇄류	신문	약전골목 관련 기사
	도서		약전골목 관련 도서	
	박물자료		채약도구	호미, 약초괘이, 복령꼬챙이, 낫
			침구류	원침, 대침, 장침, 백동제침통
		약성주기 및 약도량형기	약저울, 약손가락, 약사발, 약상, 약항아리, 토기약탕관, 잡유약탕관	
		약장기 및 제약기	약문갑, 돌절구통, 약갈이, 약볶이, 연석, 약맷돌, 약풍로, 청동초두	
	시청각 자료	기타	경험모형도, 배밀이, 쪽뜸용기, 장도, 왕진가방, 비상약함	
		사진, 지도	대구 근대 도심지도 및 약전 골목 사진, 현재 모습 사진	
	건축물		축제기록	대구 한방축제 포스터, 팸플릿, 공연 동영상, 이벤트 사진, SNS 후기 등
		건축물	일제강점기 유적지	3·1만세운동길, 이상화, 서상돈 고택, 계산성당
	약전골목 상가		한약재 도매시장을 비롯한 약전골목에 위치한 한약방 및 약업소	
	구술	한의학에 관한 전통 지식	- 약초 종류 및 효능 - 약재 채취 및 보관 방안과 한약 조제 및 관리 방안 - 통증에 따른 처방 방안	
역사흐름에 따른 문화 공간		- 약령시 폐쇄와 재개 모습 - 약전골목에 위치한 근현대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 약령시 주요 인물의 발자취		
시장에 관한 생활사		- 약재 매매에 따른 과거와 현재 모습 - 한방축제 기획 및 개최, 평가에 관한 이야기		

세표, 처방전 등 과거와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는 문서류와 신문이나 도서, 잡지, 팸플릿 등 인쇄류로 나눌 수 있다. 박물자료는 한의학 도구 및 채약도구 등 당시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시청각 기록물은 현대에 들어서 증가된 활동과 새로이 늘어난 기록 매체 항목을 다루었는데, 사진이나 지도 등의 시청각 자료를 비롯하여 축제를 통해 생산된 축제기록물 및 SNS 매체를 통한 축제 후기 등이 수집될 수 있으며, 건축물로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존 근대 건축물과 멸실 근대 건축물, 근대 역사 골목 전체에 관한 기록물 또한 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술기록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 발휘되는 기록 방안이다(합한희 2014). 따라서 이러한 구술 기록을 활용하여 약전골목의 모습 및 문화사도 구술 기록을 통해 서적이거나 음성 파일 및 영상 파일이라는 매체로 보존하고자 한다. 한 가지 사례로 약전골목을 비롯한 대구의 구술사는 ‘대구 신(新) 택리지: 대구의 재발견’이라는 생활사 가이드북이 출판되었다. 이 서적은 2001년부터 약 5년에 걸쳐 100여명의 조사원들이 대구 지역 곳곳을 걸으며 1,000여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통해 완성한 가이드북이다. 지역별, 주제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도심지를 소개하고 있는

며 시민들의 증언을 함께 담아 도시 변천사를 상세히 소개해 준다. 이 자료를 통해 구술 기록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크게 한의학에 관한 전통지식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공간에 관한 이야기, 약령시의 모습으로 나누었다. 한의학에 관한 전통지식으로는 고문서로만 남아있는 한의학 지식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술로 풀어 이야기함으로써 전통 의학 지식을 보관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약전골목 공간에 관한 것으로 약령시가 지닌 굴곡진 역사와 약전골목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및 건축물, 거주하던 주요 인물 등에 관한 것을 구술로서 남김으로써 후대에 남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민들의 생활사에 관한 이야기로 약재를 매매하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나 가게, 손님, 사건 등의 생활 이야기나 축제와 관련된 축제 기획 및 개최, 느낌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로서 보존할 수 있다.

4. 수집정책개발

각 지역에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특색이 있다. 로컬리티 기록물은 그 지역만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낸 기록물로, 살아온 역사의 길이 만큼 기록물은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색이 반영된 기록물을 약전골목이 속한 대구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수집하고 공공기관이 도움을 주며 약전골목 지역민들의 선별·분류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이 진행될 수 있게끔 수집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은 약전골목이 가진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물으로써 보존하게 될 것이며 이

렇게 보존된 기록물들은 전시 및 골목문화 해설사들의 설명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이 만들어진 콘텐츠는 약전골목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소개될 수 있으며, 공동체가 협력하여 구축한 아카이브는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4.1 고려사항

지역 기록화는 그 필요성과 목적, 구조를 알 수 있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생산 및 수집에 있어 지역의 특징 및 기능,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요소 등이 각 집단 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를 파악하여야만 수집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포괄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약전골목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약전골목은 단순히 한약재를 매매하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 있었던 한약재 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며, 조선시대 중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또한 100곳이 넘는 한의약 관련 점포가 즐비한 거리와 한의약박물관, 의료선교박물관, 한의약도매시장 및 약령공원과 약령서문은 그 지역만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 특성으로는 약전골목에 근현대사의 일부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많다는 것이다. 약령시뿐만 아니라 이상화 시인이 생전 기거하고 작고하셨던 사택과 국채보상운동 주창자인 서상돈 민족운동가의 고택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지나다녔던

90계단, 1899년 약령시에 터를 잡은 이래 천주교를 지역에 정착시켰다는 상징성을 띄고 있는 계산성당 등 근현대사의 일부분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명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안 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약전골목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는 법률과 규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단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약전골목을 이루고 있는 집단은 무엇이 있는지, 각 집단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약전골목을 구성하는 집단은 약전골목 내 거주하는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의약박물관 및 한약재도매시장을 설립한 대구시와 대구시 소속 사단법인으로 한방문화축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약령시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여 제도 약의 기틀을 마련한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 역시 약전골목을 부흥시키기 위해 경북대학교 산하 '대구 약령시 RIS 사업단'이 출범하여 대구약령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약전골목 곳곳에 위치한 골목문화 해설사들이 약전골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사가 오래된 가게를 찾아다니며 생생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각 집단의 규모와 업무,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위치에 맞게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약전골목과 같은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화 하고자 하더라도 예

산 부족, 기록물 관리 인식 부족, 홍보 부족,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기록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나 자문위원의 개입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사항 두 번째로 제시한 기록화 대상의 집단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문원(2010)은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도큐멘테이션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마을 아카이브 사례로 소개한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와 정릉 마을 아카이브 사례에서도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없었으며, 또한 기록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을 활용하고 있다.

네 번째는 수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기록화 하고자 하는 대상, 기록화의 범위, 아카이빙의 목적, 참여 집단, 각 집단의 역할, 세부적 수집방안 등에 대한 명확하고 명문화된 수집방안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공공기록에 대한 수집과정 및 방법을 특정한 공동체나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약전골목을 통하여 생산되고 유통되는 기록의 수집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수집정책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특수성 있는 수집정책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물의 수집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특정 지역

의 지역적 특색을 유지 및 보존을 통하여 해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2 수집정책 개발 및 방법

지역적 특색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유지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전골목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수집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록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아카이브 구축 이유와 사명문을 나타낼 수 있으며, 기록물 수집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집 전략 및 수집 단계 실행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수집 평가 및 활용 단계를 거침으로써 수집된 기록물이 수집 목적과 부합한지 알아보고 수집된 기록물들이 어떤 방식의 서비스가 적합한지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집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집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수집정책은 수집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토대로 수집 주체에 대한 대상을 지정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기록의 수집을 최소화하며, 수집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집 절차를 제공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표 4>와 같이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정책을 설계하였다.

4.2.1 기록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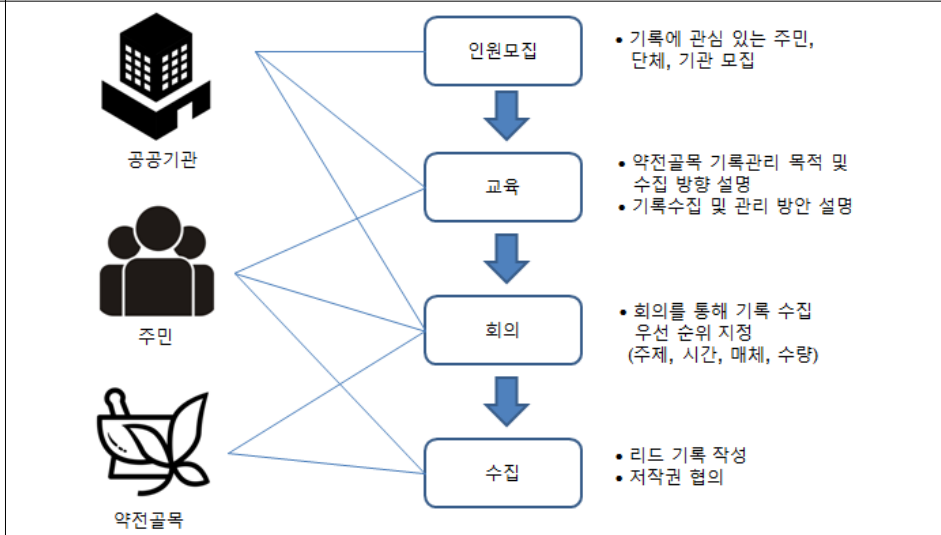
먼저 기록화 목적을 규명함으로써 왜 약전골목을 기록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시

하였다. 약전골목은 조선후기 한의약과 시장 문화가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근현대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기록화를 통해 공간 및 기억을 기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약전골목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4.2.2 기록물 수집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약전골목을 둘러싼 지리적, 역사적, 행정적, 문화적 범주를 고려하여 기록물 수집 범위를 기관 및 단체, 축제, 인물, 역사, 건물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행정적 범주에는 약전골목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운영 및 활동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범주에는 주로 기관 및 단체 활동과 관련된 업무일지, 회의록 등 행정문서를 수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를 비롯한 한의약박물관, 대구시 산하 약령시보존위원회와 경북대에서 출범한 약령시 RIS 사업단,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문화자원봉사단 골목문화해설사들이 이에 속한다. 역사적 범주에는 약전골목에 머물거나 활동한 인물 및 약전골목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및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한 기록물로는 인물이나 사건 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언 및 문헌, 사진 자료들이 있으며, 건축물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상징성을 띤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인물에 관한 요소로는 약전골목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약업소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주민, 과거 약전골목에 살

〈표 4〉 수집 정책 설계

구분	내용
기록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중기부터 이어져 온 약전골목 공동체 역사 보존 - 산업화 진행에 따른 골목 영향력 약화에 대한 지역성 확립 - 공간 및 기억을 기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
기록물 수집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단체: 한의약박물관, 약령시보존위원회, 약령시 RIS 사업단, 문화자원봉사 단, 골목문화해설사 - 축제: 한방문화축제에 관한 기록물(사진, 책자, 지도, 홍보 팸플릿, 현수막, 기념품, SNS 후기 등) - 인물: 거주민, 가게 주민, 한의사, 과거 약전골목에 살았던 저명인사, 문인 등 - 역사: 약령시의 형성부터 폐쇄, 재개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및 변화 - 건물: 약령서문, 홍살문,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 고택, 계산 예가 - 지리적 범위: 대구시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일대(남성로와 동성로 3가, 계산 2가, 수동, 종로 2가, 장관동, 상서동 일부)
수집 전략	<p>가. 공공기관: 문헌조사 수집 및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를 통해 약전골목과 관련된 기록물을 시간적, 지리적, 유형별, 매체별 제한을 두지 않고 수집 (ex. 연구동향, 지역신문, 행정자료 등) - 사명문 작성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p>나. 주민: 현장 심층 조사 및 기록물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전골목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료 및 이야기 소재 발굴 -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약전골목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 (ex. 이야기, 사진, 수기, 블로그 감상 후기 등) - 기록물 활용 및 선진 <p>다. 약전골목(수집대상): 구술 기록화 및 선별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전골목에 위치한 상점을 대상으로 구술 기록 수집 - 수집된 기록물 선별 참여
수집 실행 단계	 <p>공공기관, 주민, 약전골목은 인원모집, 교육, 회의, 수집 단계에 모두 참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모집: 기록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기관 모집 교육: 약전골목 기록관리 목적 및 수집 방향 설명, 기록수집 및 관리 방안 설명 회의: 회의를 통해 기록 수집 우선 순위 지정 (주제, 시간, 매체, 수량) 수집: 리드 기록 작성, 저작권 협의
수집 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기록물이 수집 목적과 부합하지 파악 -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식의 기록물이 수집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고려 - 추가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의견 수집 - 수집된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표 5〉 기록물 수집 범위

구분	유형	기록물 범위
기관 및 단체	한의약박물관, 약령시보존위원회, 약령시RIS 사업단, 문화자원봉사단 골목문화 해설사 등	행정문서, 홍보자료, 회의록, 업무일지 등
축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축제 관련 기록물
인물	거주민, 가게 주민, 약전골목 관련 저명인사, 문인 등	구술기록, 사진 등
역사	약령시 형성 및 폐쇄, 재개와 현재에 관련된 사건 등	문헌자료, 구술기록
건물	약령서문, 흥살문,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 고택, 계산예가 등	설명 자료, 방문 후기

있던 저명인사와 문인에 대한 구술 기록을 수집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에는 약령시 형성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과 더불어 한때 폐쇄되었던 이유, 재개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자료와 주민들의 증언 기록이 있으며, 건축물로는 역사적 가치가 갖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 자료 및 방문 후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약령서문, 흥살문,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 고택, 계산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건축물 자체를 수집하기보다 건물 내력을 설명한 팸플릿이나 방문 후기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문화적 범주에는 축제와 같은 문화활동 통해 생산된 기록물로 대표적으로 한방문화축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해당하며 이에 대한 기록으로 축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안내 책자, 지도, 홍보 팸플릿, 현수막, 기념품, SNS 후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범주에는 약전골목이라는 행정상 규정되지 않은 지역에 명확한 지리적 범주를 지정하고자 이를 규정하였다. ‘약전골목’이 법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레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약전골목의 행정상 구역으로는 남성로와 동성로 3가, 계산 2가, 수동, 종로 2가, 장관동, 상서동 일부가 해당된다(〈표 5〉 참조).

4.2.3 수집 전략

위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여타 조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 체계이다. 시흥시와 정릉시의 사례에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기록 수집을 실행할 인력(주민), 기록화 하고자 하는 대상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에 각 집단별로 수집전략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를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은 기초 문헌조사 수집 및 정리를 통해 약전골목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기록화의 목적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본격적인 기록물 수집 시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수집할 수 있는 기록물로는 약전골목에 대한 지역 신문, 행정자료를 포함하여 연구 동향 및 서적, 지역단체가 생산한 발행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을 토대로 왜 약전골목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빙 하여야 하는지의 목적을 담은 사명문을 작성할 수 있다. 사명문은 수집기관의 존재이유이자 방향성을 잡기 위한 지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문화된 사명문이 없다면 수집정책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비체계적인 수집을 불러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권순명, 이승휘 2009).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이다. 기록물의 수집은 그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체나 도시와 같이 지역과 관련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인력은 기록물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심층 조사 및 기록물 발굴 업무를 통해 약전골목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야기를 발굴 및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약전골목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토박이나 일정기간 머물고 떠나간 주민들을 비롯하여 일제강점시기대의 약전골목을 기억하는 주민과 6.25 근현대를 경험한 주민들이 기억하는 약전골목의 모습을 시대별로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은 구술기록 뿐만 아니라 사진, 에세이, 블로그 감상 후기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록물을 활용하고 알리는 작업을 스스로 기획하여 약전골목 아카이브가 자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수집 대상으로써 약전골목은 기록화 대상으로 약전골목에 대한 맥락과 관련 기록에 출처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이라는 특성상 인쇄자료 같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비교적 많지 않으므로 약전골목에 오랫동안 기거하였던 상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 기록화가 매우 중요하다.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기록관리가 민간기록 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때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인 여성, 노동자, 사회적 약자,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이야기를 보존하였다(함한희 2014).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기 힘든 약전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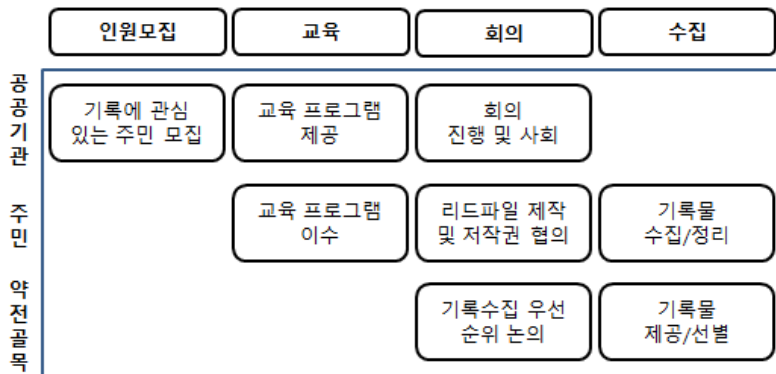
역시 이야기나 사진 등을 구술로써 남기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구술기록을 수집함에 앞서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신뢰감 및 친밀감, 이해, 우정 상호 교감 등이 먼저 형성된 후 수집이 시행되어야 한다. 구술기록은 면담자와 구술자가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면담자의 준비상태나 진정성 등에 의해 구술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채취할 경우라도 1차 기록과 2차 기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술자의 증언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있더라도 면담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면담자는 구술자의 생활세계에 개입하여 상호교감을 형성한 후에 구술 수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민족지적 구술 방법(Ethnographic Oral-history)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기록·분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구술자의 일상 생활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료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져 기억을 구축하고 연결하기에 유용할뿐더러, 구술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행위 동기나 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일차적인 상호교류뿐만 아니라 이차적인 해석에도 참여할 수 있다(함한희 2010). 마지막으로 수집된 사료의 선별 및 정리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가이드라인과 주민들의 판단 하에 수집된 기록물의 맥락을 읽어내고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맥락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에 기록화 되는 대상, 약전골목 층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4.2.4 수집 실행 단계

수집전략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전골목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을 크게 공공기관, 주민, 약전골목(거주민)으로 나누어 <그림 3>과 같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실행과정은 기존의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와 정릉 마을 기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단계는 인원모집, 교육, 회의, 수집 순으로 제시하였다.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는 시흥 아카데미에 '마을 기록학교' 과정을 설립하여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했으며, 정릉 마을 기록 역시 '우리동네 능력' 회원 및 대학생, 도서관, 주민 등이 모여 기록 수집의 첫 걸음을 떼었다. 따라서 먼저 지자체의 주최 하에 본격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홍보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였다. 인원이 모이면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흥시에서는 시흥 아카데미 소속 마을 기록학교를 개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10강에 걸쳐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구술기록 정리, 마

을 공동체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처음 기록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기록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과 종류의 다양성을 학습한 후 약전골목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다양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약전골목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3강에서는 약전골목에 대한 기록물 유형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추가적인 새로운 기록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4강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약전골목에 중요하다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 및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할 때 어떤 기록이 가치있는 기록인지 생각하게 하고자 하였다. 5강과 6강은 구술기록에 대한 수업으로 구술기록의 특징 및 장점 등의 이론을 습득한 후 직접 채취하는 실습과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약전골목 같은 민간 공동체의 특성상 종이 기록물보다 시청각류, 박물관가 월등히



<그림 3> 수집 실행 단계

〈표 6〉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목적
1강	기록이란 무엇인가?	- 기록의 중요성 및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 - 기록물의 종류 및 약전골목에 관한 기록물
2강	국내외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사례	- 시흥 바라지 사례, 산복도로 아카이브, 피맛골 아카이브 사례, 오텐센 아카이브 등을 소개
3강	약전골목에 대한 기록물	- 제시된 기록물 유형 및 특징에 대한 토론 - 추가적인 유형에 대한 의견 제시
4강	기록물 만들고 모으기	- 어떤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가 - 의미 있는 기록 만들기
5강	구술 기록 만들기 1	- 구술기록의 중요성 및 구술자 대상 찾기
6강	구술 기록 만들기 2 (실습)	- 구술기록 채취 및 산출물 정리
7강	기록물 정리하기	- 기록 분류 및 정리 - 생산 시 향후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고려 - 기록의 특성, 형태, 내용 등에 따라 정리
8강	약전골목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 기록물을 활용한 서비스 방안
9강	마을 아카이브의 및 아키비스트	- 마을 아키비스트의 업무(수집, 관리, 활용)

많으며 또한 유형의 기록물보다 사람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증언 및 구술은 약전골목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술 기록에 대해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과 직접 채취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였다. 7강에는 수집된 기록물을 분류 및 정리하는 과정으로 분류, 선별, 정리에 대해 간략히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한 분류 지침을 만들고자 한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약전골목 거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8강은 수집·분류된 기록물을 활용한 서비스 방안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학습한 뒤 공동체 아카이브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9강에는 아키비스트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며 마을 아키비스트로서의 역할을 안내하였다. 또한 직접 기록물을 수집 및 분류함으로써 기록물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수집된 기록물을 제3자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마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전골목에 대해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로컬리티 기록물의 특징은 고정된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으로, 기록대상인 약전골목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록물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어떤 주제의 기록물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가 도출되어야 하며, 수집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각 집단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 단계가 진행될 시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먼저 리드 파일(Lead File)이 작성되어야 한다. 리드 파일이란 잠재적 수집물의 소장자, 내용,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문헌조사 및 현장발굴을 통해 작성되는데 리드 정보에는

생산 기록 조사, 최근 문헌 조사, 선행 기증자·연구자·기록관 소장물 등으로부터의 정보 조사 등의 방법이 있다(기록학용어사전 2008). 리드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기증자 또는 잠재적 소장자의 기록물이 지역의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리드 정보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순명, 이승희 2009). 그 다음으로 저작권 협의 문제가 있다. 수집은 대개 원본 기증, 사본 기증, 위탁, 구매, 대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와 공동체라는 '단체'가 수집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산물을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2.5 수집평가 및 보완

마지막으로 수집 평가 및 보완 단계에는 수집 과정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이 수집 목적과 범위 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수집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이나 매체의 기록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집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수집된 기록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된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기록물을 다룰 때와 같이 엄격하게 잣대를 두자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록 속성이 지켜져야 한다. 사진의 경우 식별할 수 있는지, 종이 기록의 경우 페이지가 분실된 것은 없는지, 구술기록의

경우 구술자의 말이 수집된 기록물들과 일치하는지, 청자가 화자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기록물이 누락되지 않게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5. 결론

18세기의 기록은 대개 가진 자의 기록, 또는 글자를 아는 지식인층의 기록이며 이러한 기록들만 모으고 보존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다. 뵘스는 “오랜 기간 아카이브를 가지고 지켜왔지만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며 기록관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 로컬리티 기록을 수집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즈음으로 아주 최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마을이 사라지거나 옛 모습을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지만, 이를 기록화 하여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만 하는 행정기록도 아니며,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역사기록도 아닌 그저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마을, 혹은 공동체 기록은 쉽게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을, 지역, 공동체 등을 아카이빙하여 구술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록물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분열되고 있는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로컬리티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화 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기록물 수집 활동은 분열되어 가는 공동체를 한 층 공고히 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약전골목이라는 대구광역시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기록물 수집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약전골목의 역사를 알아보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기록물 유형을 조사한 후 약전골목 내에 약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인 기록을 전시하고 있는 사장님과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약전골목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골목이 점차 상업화됨에 따라 약전골목의 가장 큰 특징인 약업소 관련 점포가 줄어들고 있으며, 한약의 손쉬운 구매와 더불어 세대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관심으로 인해 골목을 찾는 사람들 역시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약전골목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역시 타 기관과 비교해 특이점이 없었으며 이 역시 발전하지 않아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전골목이라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를 통해 제시된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와 정릉마을 기록 사례, 오펜센지구 아카이브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섯 단계의 수집 전략을 설계하였으며, 수집 대상인 기록물은 크게 기관 및

단체에서 생산된 기록물, 축제리는 이벤트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 인물 및 역사, 건축물 관련 기록물로 분류하였으며, 약전골목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먼저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화를 통해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밝힌 후 기록물 수집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와 정릉마을 기록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체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수집 전략 및 수집 실행 단계를 설계한 후 마지막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평가 및 활용하는 것으로 수집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이를 통해 약전골목을 단순한 시장으로서의 인식보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갖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집에 참여하여 약전골목에 대한 인식이 재평가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약전골목 측의 의견 없이 일반적인 틀만 제시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시청(지자체), 한의약박물관, 골목문화해설사, 약업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전골목에 대한 인식현황 및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집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으로 첫째, 약전골목과 관련된 각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약전골목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및 구축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집단별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개된 사례들을 토대로 작업을 분담하였으므로 실제 약전골목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수집 활동에 대한 의견을 보충

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록 보존의 중요성과 기록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음을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수집활동 및 서비스 활동 모두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어서는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의 이점을 알림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주 이용대상인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고, 무엇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수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약전골목 주민들에게는 구술 기록을 채록함에

있어 충분히 협조를 구해 진행되어야 한다. 구술기록은 알려지지 않은 약전골목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술 기록 채록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술자에게는 사전에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며, 그동안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 교류를 통해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이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 공동체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전골목의 아카이브 구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350년 역사' 대구 약령시 존폐 위기. 2012. 『경향신문』. 5월 20일. [online] [cited 2012. 5.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02157375&code=950306>
- [2] 356년의 약령시가 3년 만에 휘청거린다. 2014. 『영남일보』. 9월 2일. [online] [cited 2014. 9. 2.]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902.010010706020001>>
- [3] 강대기 편.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파주: 아카넷.
- [4]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5] 김신근 편. 1987. 『한의약서고(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6]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7] 류지석. 2009. 로컬리톨로지를 위한 시론: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로지. 『한국민족문화』, 33: 135-158.
- [8] 민기석. 2012.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서비스 방안: 아카이브 이벤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
- [9]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10]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11]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 [12]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13]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 [14] 전말숙. 2012.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 대학원.
- [15] 전혜선. 2016. 시흥아카이브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2016년 10월 15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27-232.
- [16] 조경만 외. 2003. 『광주 문화중심도시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17]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18] 최연희. 2016. 정릉 마을기록 사례.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2016년 10월 15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33-238.
- [19]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20] 함한희. 2010. 구술사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1(1): 7-47.
- [21] 함한희. 2014. 역사와 과학으로서의 구술사: 구술사연구 방법과 실천. 『구술사연구』, 5(2): 193-19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350 Years of History’ Daegu Yakjeon Alley Crisis”. 2012. *The Kyunghyang Shinmun*. May 20. [online] [cited 2012. 5.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02157375&code=950306>
- [2] “356 Years of Yakjeon Alley is Fired in Three Years”. 2014. *Yeongnam Daily News*. September 2. [online] [cited 2014. 9. 2.]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902.010010706020001>>
- [3] Kang, Dae-Ki. 2001. *Understanding and Quest for Community*. Paju: acanet.
- [4] Kwon, Soon-Myung and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 [5] Kim, Shin-Keun. 1987. *Thinking of Korean Medicine Dictionar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6]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 [7] Ryu, Ji-Seok. 2009. "An Initiative Study for Localitology - Local, Locality and Localitology." *Journal of Koreanology*, 33: 135-158.
- [8] Min, Ki-Suk. 2012. *Study on records service of local archives based on locality*. M.A. thesis,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Korea.
- [9]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 [10]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 [11] Sohn, Dong-you and Lee, Kyoung-juhn. 2013.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161-206.
- [12]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
- [13] Lee, Eun-Jin, Lee, Yu-Jin and Youn, Eun-Ha.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for Young-nak Church's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137-164.
- [14] Chun, Mal-Suk.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Urban Archives in Redevelopment Areas*. Ph.D. diss.,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15] Jeon, Hye-Sun. 2016. "Siheung Archives Record from Low Memory." I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f Korean Archives and Records Professionals*, October 15, 2016,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27-232.
- [16] Cho, Gyoung-Man et al. 2003. *Basic Research Report for Cultural City Planning in Gwangju*. Seoul: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17]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233-278.
- [18] Choi, Yeon-Hee. 2016. "Jungnung Village Record Case." I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f Korean Archives and Records Professionals*, October 15, 2016,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33-238.
- [19]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08. *The Dictionary of Archives*.

Seoul: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 Hahm, Han-Hee. 2010.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in the Study of Oral History."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1(1): 7-47.
- [21] Hahm, Han-Hee. 2014. "Oral History as History and Science: *Oral history of Research and Practice*."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5(2): 193-199.